

## “LPG업계 서로 지혜모아야 할때”



먼저 지난 2월27일 정기총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협회장으로 선임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故 고광익회장님께서 지난 2년동안 한국LPG가스공업협회를 명실상부한 LPG업계의 중심으로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기에 무한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끼지만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고인의 LPG업계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LPG산업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 프로판·부탄업계는 제반 정책적변화와 함께 사업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프로판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에 따른 LPG수요의 한계와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또한 지난 1월1일부터 가격이 전면 자유화돼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했으며, 업계간 과당 출혈경쟁 심화로 프로판업계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함께 판매업계와 석화사가 용기충전업에 진출하는 등 기존의 유통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판매소와 소비자간 안전계약 체결, 벌크공급의 활성화, LPG용기의 관리 문제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LPG업계가 해야할 일은 가정·상업용이 대부분인 프로판의 수요를 수입사·기기업계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냉난방용(GHP)보급 등 신규수요를 개발해야 하며 20kg·50kg용기보다는 소형 저장탱크의 공급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PG판매업계와 석화사의 용기충전업 진출 등에 대해서는 용기충전업계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이와함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매소-소비자간 안전계약제를 충전소 상호표시제를 통한 충전-판매업계간 계열화로 확대하는 등 충전소 중심의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PG자동차충전업도 올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특소세가 기존 kg당 40원에서 114원으로 대폭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 704원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LPG차량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한해동안 신규허가를 받은 자동차충전소는 1백93개소이며 올해 허가대기중인 곳도 3백53개소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린벨트내 자동차충전소도 전국적으로 수백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충전소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제2의 주유소 사태(신규허가 급증에 따라 상대적으로 매년 3백~4백여개씩 휴·폐업함)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 LPG차량은 기술력부족에 따른 청정성능의 미약으로 환경측면에서도 타연료 차량에 비해 우수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충전업의 해결과제는 무분별한 신규허가의 남발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LPG의 특소세 인상폭을 최종 연도인 2006년에 휘발유의 50%이내, 열량 등을 감안해 경유의 70%이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LPG가격자유화를 계기로 kg당 마진체계를 외형가격 대비 일정비율 마진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LPG전용엔진개발로 LPG차량의 청정성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프로판·부탄업계 모두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협회나 몇몇 개인에 의해 풀어갈 수 없으며 LPG업계 모두가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가 노력하겠습니다. 회원께서는 여러 현안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협회에 제시해 주시고, 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때일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서로 지혜를 모은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위해 본인이 앞장설 각오이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LPG가스공업협회

회장 남 석 우